

01 교회소식

주님 사랑으로 뜨거워진 목회자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선교팀은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하고, 국회에서 만민 사역을 소개하는 등 영광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탐심을 버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불같이 기도해 신속하게 성결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03 기획특집

영적 장수가 되는 비결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04 간증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신앙 서적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며 참 행복을 얻은 최정현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664호 2014년 12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크리스탈포럼 목회자 세미나 ‘십자가의 도’

강사 이수진 목사, 이스라엘 국회 행사에도 초청받아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 이후 현지 목회자 모임인 크리스탈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이 초청받아 영광 돌리고 있다. 이수진 목사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전했고, 국회 행사에도 초청받아 이재록 목사의 사역을 전했다(사진 1~4). 이 외에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으며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은 공연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사진 5~8).

지난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후다 호텔에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핀란드, 라트비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130여 명의 목회자와 일꾼들이 사모함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우리 교회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의 충만한 러시아어, 히브리어, 영어 찬양과 부채 무용,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한 무용 등 아름다운 공연은 모두가 하나 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했으며, 장내는 은혜와 감동으로 뜨거워졌다.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자세히 풀어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 설교인 ‘십자가의 도’였다. 강사로 초청된 이수진 목사(우리 교회 교역자 회장)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인간 경작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은 무엇인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인지 등 십자가 도의 핵심 내용을 전했다.

참석한 목회자와 일꾼들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니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들이 깨달아졌다.”며 “세미나 말씀이 아주 좋았다.”고 연신 고백했다.

이어진 회개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능력 있는 종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새 힘을 받았다.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한 이스라엘 국회 부의장·노동당 사무총장 힐리 바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이스라엘 국회를 상징하는 배지를 강사 이수진 목사에게 전달했다.

또한 TBN 러시아 사장 이고르 니키티ن 박사는 “2009년 이재록 박사님께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신 후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힘을 받아 복음 전파와 방송 선교가 이전보다 많이 수월해졌다. 새롭게 시작하는 히브리어 방송 채널에 이재록 박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방송하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방송 선교에 대한 포부를 전했다.

이 밖에도 12월 2일, 선교팀은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Helping Hand Coalition) 회장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

가 주관하는 이스라엘 국회(크네셋) 행사에 초청받아 국회를 방문했다. 이 행사에는 이스라엘 이민국위원회 위원장 이자 장관인 요엘 라즈보조프 장관을 비롯, 전 세계 홀로코스트 후원 연맹 지도자와 생존자들, 후원단체들이 참석했다. 이수진 목사는 이 자리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을 예로 들며 “전 세계의 분쟁과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전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수진 목사는 이스라엘 인터넷 방송인 ‘데일리 이스라엘’과 TBN 러시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만민의 사역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 목사는 11월 28일과 30일, 각각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교회 집회를 통해 ‘인자의 삶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에 대해 설교했다. 이어진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6년간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성도가 치료받아 간증하는 등 많은 성도가 치료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탐심에 미혹돼 범죄하는 경우가 많지요.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중 금은과 외투를 훔쳐서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물론, 모든 가족과 가축까지 멸망당했지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지만 탐심으로 인해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드리며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2. 영혼이 잘된 사람은 탐내지 않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주님을 믿고 참 생명을 소유했다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며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요. 결국 둘 다 죽음을 맞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나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녕 믿음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축복을 못 받고 힘든 상황이라도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며 미천한 삶도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 가운데 살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부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영혼이 잘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지요.

영혼이 잘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물질을 얻을 때는 오히려 욕심이 잉태해 죄를 짓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열심을 냈다가도 사업에 축복을 받으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는 등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세상 것을 탐내지 않으며 축복을 받아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로 인해 세상 정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넘치도록 충성하면서 많은 핍박과 굶주림, 추위와 고난을 겪었지만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감사했습니다(빌 4:11-13).

3. 탐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응답을 못 받는다거나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의를 좇아 행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구했을 때는 기도해도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않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3절에 “... 너희가 얻지 못한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구할 때 사람의 생각 속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마음을 아시며 그

분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에(고전 2:10) 성령의 주관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받으므로 영혼이 잘될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도 신속히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데 먼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 이길 믿음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요. 또 불같은 기도의 능력과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능력,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구하며 중심으로 기도하면 점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이 생각지 못한 기도 내용이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오랜 시간을 부르짖어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나지요. 억지로 기도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중심으로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오히려 기도를 끊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보이고 마음에 충만함과 기쁨이 넘쳐나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말씀 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돼야 성령이 어떤 것을 주관해 주신다 해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불같은 기도가 쌓일수록 마음의 탐심과 모든 죄악이 신속하게 버려지고 무엇이나 응답받을 믿음이 옵니다.

세상 것을 바라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해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불같이 기도해 신속하게 성결되고 범사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온전한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탐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유가 있어도 “족하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천국 소망으로 마음을 채울 때라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1. 세상 것을 바라는 탐심을 버려야

많은 사람이 호화로운 집이나 진귀한 물건을 보면 “참 좋다, 아름답다.”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넘어 “나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 탐심이 마음 안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뿐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탐심과 같은 뿌리로서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거짓말, 도적질, 간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살인 등 갖가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 형제나 부모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 원수 맺는 경우도 생기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7: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8: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적 장수, 그릇 준비가 되셨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되어 사명 감당할 일꾼들을 찾으신다.

이처럼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량이 되는 영적 장수로 신속히 변화되길 바란다.

01.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 연단을 통해 자신을 깨끗케 해 가는 것이 달라진다. 처음엔 열심을 내다가도 이내 시들어 버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예전보다 더 악해지고 세상 가운데 심하게 변질돼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벧후 2:20).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변함없이 자신을 발견해 변화시키므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고후 7:1). 그럴 때만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정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합입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이처럼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02. 용도에 맞는 그릇

주인은 어떤 음식을 담을 것이냐에 따라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사용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선택해 쓰신다. 각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 얼마나 크며 어떤 용도에 가장 적합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중심을 보시며 그릇의 깨끗함과 크기 등을 고려하셔서 가장 합당한 곳에 쓰기를 원하신다. 각 사람의 달란트가 무엇이나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알아서 그에 맞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보기에 좋아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신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분야로 주관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쓰일지 정해져 있거나 꼭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얼마나 그릇을 깨끗이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으로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크고 귀하게 쓰일 수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야를 맡은 일꾼으로서 그 분야를 완벽하게 감당해 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해도 그것으로 그릇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합당한 그릇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영육 간에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능히 준비된 그릇으로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그 쓰임에 맞는 준비된 그릇들이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을 받든 말씀 무장과 기도는 기본이다. 열심히 영적 장수로 변화돼 각자의 달란트도 마음껏 개발해서 준비된 그릇으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03.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

아무리 집 안에 많은 그릇이 있다 해도 유독 손에 익숙한 그릇이 있다. 설령 새로 꺼내 놓은 예쁜 그릇이 있다 해도 그동안 길든 그릇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영적으로 볼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늘 곁에 두고 쓰기 원하신다. 그리하여 더 크고 깨끗하며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다.

새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이 주인의 손에 맞게 길들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듯이 사람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된다. 좋은 중심을 가진 깨끗한 그릇은 연단을 통해 신속히 변화돼 주인의 손에 맞는 그릇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히 쓰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비록 금그릇이 아니라 해도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 나는 왜 어떤 재질의 그릇인가 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일 뿐 아니라 금그릇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Merry Christmas 1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1차 영혼육 1-5
- 사랑장 4-8
- 심계명 4-8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2
- 요한계시록 강해 46-47
- 천국 6-10
- 찬양

GCN TV설교

- 성경 속에 사는 교회 2 (이수진 목사)
- 말장이 (이미영 목사)
- 같은상황, 다른마음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4 (이희선 목사)
- 생명수 16 / 옮기 강해 7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8 / 열 재앙 1 (정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창조와 과학 2
- 옛날 옛적에 7
- 모두 드려요 19
- 즐거운 요리 2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릉 19
- 몽도 튼튼 마음도 튼튼 3
- 내 마음의 찬양 2
- 흥겨운 소리 1
- 만민 지킴이 6
- 뷰티풀 라이프 13
- English 10
- 플로리스트 11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1
- 러시아 연합대성회 3
- 2014 만민 하계수련회 교육 1-2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12.14~12.20

저와 내내는 GCN 방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은 후 설교를 시청하지요. 요즘 제 즐거움은 그토록 갈망했던 성경에 대해 밝히 증거하는 복음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경을 구입했으나**

1988년,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때의 일입니다. 부학장으로부터 이유도 모른 채 학교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설명을 요청해도 답을 주지 않았지요. 이어 제 유학비를 마련하던 아내까지 가게에서 쫓겨나는 등 불통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하는 순간, 마음에서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하늘을 향해 침을 뱉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 즉시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며 통곡했습니다.

박사 예정자 시험을 앞두고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지자 '하나님은 존재 하지 않는구나.' 하며 하늘을 향해 침을 뱉 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제 인생에서 매우 큰 회심의 사건이었고, 저는 곧바로 성경을 구입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곤고하고
신실한 교회를 찾아 방황하던 중**

하나님 은혜로 미국 알라바마 주립대 어번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후, 1992년 한국 삼성전자 통신연구소를 거쳐 1993년 한국통신 소프트웨어 연구소 연구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자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1994년, 회개를 외치는 어느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해 제 삶 속에 '회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됐지요. 그 뒤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 다. 또 불현듯 떠오르는 악한 생각 들을 제어할 뾰족한 영적 지식이 없었지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도가 부족하고 동시에 사소하다고 간과하면 죄를 짓는 발걸



**“예배와 기도가
살아 있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최정현 집사 (57세, 광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은 저를 매우 곤고하게 했고, 스스로 정죄하며 고통을 받았 습니다.

2014년 1월 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오산리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갈 때까지 함께할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교 회를 찾기 시작했지요. 거의 매일 기독교 방 송들을 통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GCN 방송을 통해 성경의 복음을 만나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읽고**

어느 날, 제가 늘 보던 아이패드 앱이 만료돼 저는 무료 앱인 에브리온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교란의 여러 기록 방송 중 GCN 방송이 있었지요.

채널 타이틀에는 제가 1994년 10월부터 재직하는 광운대학교의 박상열 교수님 방에서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이재록 목사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 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영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죄와 의와 심 판 등 성경께서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시는 것이었지요. 또 저를 당황케 한 것은 잠자리였습니다. 잠자리가 성도들의 손과 머리와 몸에 붙어 있는 장면을 보 며 아주 신기했지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 니 예상치도 못한 책이 수십 권이 있었습니 다. 『천국』(상)(하), 『지옥』, 『영혼육』(상)(하), 『지혜의 샘』 등 전자책을 구입해 읽 다 가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 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말 씀하신 구절 때문에 '내가 만일 이런 상태 로 죽는다면 구원받은 영일까? 아니면 멸 한 육신일까?' 하며 늘 고민을 했는데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한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고, 무엇과 싸워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가 설명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편의 설교가 일목요연 하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들 어보니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 가 다르다는 영적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온

몸에 전율이 흐르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 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흘린 듯이 '요한계시 록 강해, '믿음의 분량', '영혼육', '막달라 마 리아' 등 설교 영상을 찾아보며 매일 다니 엘철야 기도와 화와 금요일야예배가 있다 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 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 있는 교
회에 등록해 성령의 역사를 체
험하며 천국 소망이 넘쳐**

2014년 8월 말, 저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성령의 감동 함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 신 교회라는 확신으로 흥분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참석할 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중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 다.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당뇨병으로 인해 땀을 흘리면 악취가 나서 곤혹스러웠습니 다. 당뇨 환자 이면서 땀을 많이 분비하는 사람은 땀 속에 있는 글라이코젠(포도당의 일종)의 양이 증 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 중 세균에 의해 발효되고 땀 속에 있는 여러 노폐물들로 인 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땀 흘리며 불같이 기도했는데도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금요일야예배를 큰 감동 속에 드리면서 '과연 이재록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 수많은 성도가 일사분란 하게 뽀얀 얼굴과 즐거운 미소로 이렇게 헌 신할 수 있을까?' 하며 진짜 참 교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8월 31일 주일 아침, 저는 지난 10 년간 안 입던 양복을 꺼내 입고 잠시 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는 성령 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지요. 저는 감격 속에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고, 아내 권순희 집 사도 10월 19일에 등록해 신실하신 하나님 의 역사를 체험하며 천국 소망과 끊임없는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성경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 주 시는 목자가 계시고 그 증거가 풍성하니 얼 마나 감사한지요. 더욱이 그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인간 경작의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럽지만 합니 다. 참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신 삼위일체 하 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 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창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신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영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9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